보다 나은 정부

부처합동 (관세청-식약처)

보 도 자 료

[1.14.(화) 12:00부터 보도 가능]

배 포	2020. 1. 14.(화)
담 당 과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관세청 조사총괄과
과 장	최현철(☎043-719-6251) 한창령(☎042-481-7910)
사 무 관 서 기 관	마정애(☎043-719-6257) 염승열(☎042-481-7818)

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

“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자제” 국민에 당부

□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세관 **통관이 보류**되는 **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**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**벌금 상당액을 부과**하는 등 **통고처분***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.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(시가 33억원 상당)에 이릅니다.

*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.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

○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(제품명 : PURTIER PLACENTA)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**뉴질랜드 사슴태반**으로부터 채취한 **줄기세포**를 **주원료로 제조**하여 **항노화 등에 효과**가 있다고 홍보하며 **판매**하는 제품입니다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‘사슴태반 줄기세포’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러한 이유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(PURTIER PLACENTA)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.

*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**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(줄기세포 등)을 분리·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**

OPEN

□ 세관에서 **통관을 보류**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**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**해지자,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**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**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**밀수입**을 시도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, 이동경로 등 **행동수칙**을 만들어 서로 **공유**하였고,

○ 세관에 적발되어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**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**으로 **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**도 **미리 준비**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

□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**전문적**으로 **다단계 판매**하는 회사로 **세계 각국**에서 **회원을 모집**하고 있는데,

○ **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**들은 **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**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, 밀수품 몰수 등 **손실을 감수**하고 **밀수입**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□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**암, 고혈압, 당뇨** 등 질병 **치료에** 효과 있다고 **허위·과대 홍보를** 하고 있으나,

○ 제품의 **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** 국내 **반입이 금지**된 만큼 **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,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**하고,

○ **불법 식·의약품의 국내 반입** 및 **유통을 차단**하기 위해 휴대품, 국제우편, 특송화물 등에 대한 **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**하고, **식약처와 협업**하여 **불법 유통·판매 행위**를 적극 **단속**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OPEN

참고 **적발 현품 사진**

케이스(앞면)	케이스(뒷면)
캡슐제품	캡슐제품(절단 시)